

사회

범죄 유혹 빠진 '위기의 주부들'

인출기서 현금 절도·경제난에 식료품 슬쩍 한 순간 실수로 범죄자 전락... 대책 세워야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로 전락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순간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남이 분실한 지갑과 현금부터 생계에 보태기 위해 옷, 식료품 등을 훔치는 주부에서 절도가 습관이 된 사람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

지난 31일 광주경찰청에 절도 혐의로 불잡힌 차모(여·39)씨는 평범한 주부였다. 그러나 지난 21일 오전 은행입부를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현금인출기 속에 남은 현금 10만원을 보는 순간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차씨는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본 뒤 마치 본인의 돈인양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생활비에 보냈다. 없어

도 그만인 돈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차씨가 현금을 훔치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그대로 잡혔기 때문이다. 차씨는 경찰에서 "나도 모르게 현금을 챙겼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30일 광주남부경찰청 은행에서 지갑을 훔친 김모(여·54)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은행에서 백모(여·56)씨의 현금 80여만원이 든 9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에도 광주시 광산구의 한

마트에서 일하며 판매용 식품을 훔친 윤모(여·42)씨 등 주부 7명이 광주광산경찰청에 입건됐다. 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보름간 마트 계산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장에 진열된 돼지고기, 야채 등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주부들이 한순간의 욕심이나 어려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절도가 습관처럼 굳어지면서 대담해진다는데 있다.

지난 27일 광주서부경찰청은 백화점에서 모피코트 등 수천만원대의 의류를 상습적으로 훔친 주부 김모(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의 모 백화점에서 140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훔치는 등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주의 백화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절도 등 전과 7범인 김씨는 대담하게도 매장이 혼잡한 틈을 타 모피코트를 입고 나오거나 쇼핑백에 담은 수법으로 명품 의류 10여벌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광산구 한 마트 생선가게에서 업주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해 현금보관함에서 70여만원을 훔친 50대 주부가 경찰에 불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주부들에 대한 경찰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교폭력, 중학생이 문제다

광주경찰, 48%로 고교생보다 많아

광주지역 학교폭력 가해자는 여전히 중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광주지역 5개 경찰서에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학생들은 모두 238명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폭력 51.4%, 기타 22.4%, 갈취 21.7%, 성폭력 2.1%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연령대는 중학생 48.1%, 고등학생 42.8%, 무지 기타 6.3%, 초등학생 1.9%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에는 중학생이 50.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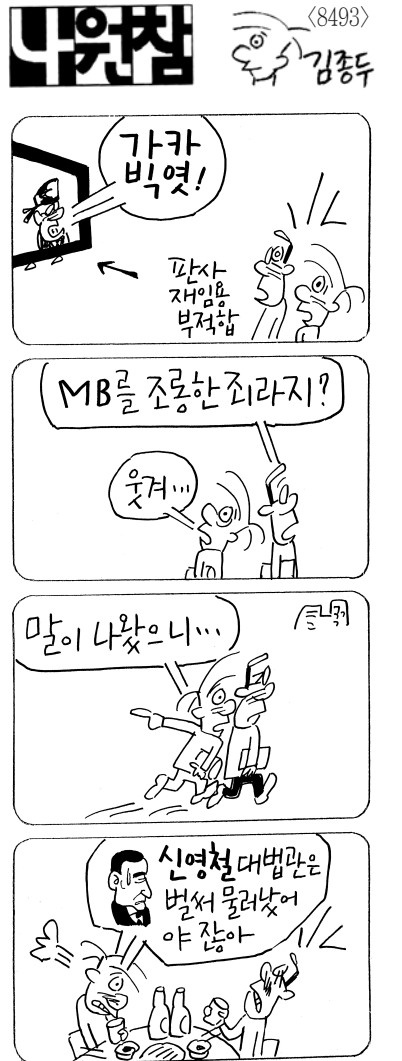
한편 광주경찰청은 이날부터 5월10일까지 100일에 걸쳐 학교폭력 근절 및 선도보호에 착수했다.

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이버안전드림' 포털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이 기간동안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을 통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신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한 교사에게는 표창도 수여한다.

일진회 등 폭력서클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서클해체 및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가해학생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선도를 조건으로 불입건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 정박 '왕건호' 침수 긴급 복구작업

나주시 공산면 왕포돛배 체험장 인근 영산강에 정박 중이던 고대선박 복원선 왕건호(97t급)에 물이 스며들어 긴급 복구작업이 실시됐다.

1일 나주시와 선박건조사는 최근 닻친 한파로 결빙된 얼음조각과 왕건호 판재 사이를 메운 방수용 '데크'이 반복적으로 부딪히면서 밀려나가 물이 스며들어 복구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침수가 3시간가량 진행되면서 물은 배 밑바닥에서 1.5m가량 차올라 늦게 발견됐으면 하마터면 가라앉을 뻔했다.

왕건호는 지난해 10월 영산강사업 준공식 행사에 맞춰 승촌보 인근까지 40여km를 기법 운항한 이후 영산강에 정박 중이었다. 97t급 2층 구조로 길이 29.9m, 너비 9.9m, 높이 3.16m, 주 돛대를 포함한 높이는 18.2m, 선원 3명 등 최대 96명이 승선할 수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장애소녀 8년간 철창 감금 확대

인권위, 광주 현비동산 시설폐쇄 권고·시설장 고발

10대 뇌병변 장애인 여성이 수년째 철창 형태의 격리 기구에 갇혀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장애인을 철창 형태의 격리 기구(사진)에 방치한 광주시 서구 향림원 산하 장애인 생활시설인 현비동산의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 폐쇄를 광주시와 서구청에 권고했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받아들여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원생들을 전원 조치 등 후속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시설은 지적 및 뇌병변장애 1급 등 중증장애가 심한 A(17)양을 지난 2004년 1월부터 8년간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5m 형태의 격리 기구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질과 자폐 등을 앓고 있으며 보호자의 부축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A양은 사고예방과 보호를 이유로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이 기구에서 격리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린 시설 장애를 이유로 버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A양은 지난 2004년 현비동산으로 전원하기 전인 광주시 동구 행복재활원에서도 이 격리기구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직원들은 지난 2009년 이전 생활지도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다리나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는 처벌을 가했고, 여성재활교사가 남성 장애인들의 목욕을 보조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시설장은 자신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제철 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고 개별 지갑패야 할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서구청의 요청으로 같은해 9월부터 최근까지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지적 및 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은 보호자가 1대 1로 24시간 보살펴야 하



지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장애시설의 경우는 사실상 힘들다"며 "이번 사건도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개학... 친구야 반갑다

1일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광주시 광산구 수완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팔씨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화상경마장 뇌물 관련자 중형 구형

검찰이 순천화상경마장(마권장의 발매소) 개장과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마사회 전 간부와 위탁경영 사업체 대표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1일 순천화상경마장 관련 공판에서 경

마장 위탁경영 사업체로부터 8659만원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마사회 간부 김모(55)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8637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 및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위탁경영 사업체 대표 이모(48)씨와 이사 윤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개장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준 혐의로 지난 2010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 순천화상경마장은 지난 2006년 시민 반대로 개장이 중단됐으나 2010년 4월 개장을 재추진, 지역에서 큰 반발을 샀으며 선고는 이달 23일 있을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주민 분진 영향 폐질환 등 의심"

郡, 역학조사 발표

장성 고려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분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폐질환을 호소한 일부 주민이 분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군은 1일 주민 10명이 시멘트 공장 분진과 담배, 가축력 등의 복합

적인 영향으로 규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규폐증 의심자 2명은 각각 38년, 25년간 공장 부근에 살았으며 담배나 가축력 등의 기타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규폐증은 유리규산의 미립자가 섞인 공기를 장기간 마시므로써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기침이나 담,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심해지면 폐 기능 부전에 빠지기도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기종 등 기관지질환 발생은 분진작업장에서 일할 경우 일반인 보다 5.2배, 주변에 20년 이상 거주하면 3배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해당 시멘트 공장의 관계자는 "회사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 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며 "먼지 차단을 위한 집진장치, 방진막 설치, 편백나무 심기 등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안타까운 장애 가장의 비극

직업없이 가족 부양 힘들어 자살

지체장애를 가진 50대 가정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장애인 가장은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같은 장애를 겪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부양해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일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산정동 한 도로변에서 지체장애3급인 A(54)씨가 1t화물차량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씨가 숨진 차량에서는 화덕에 타다 남은 연탄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 먼저 간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체장애1급인 아내(50), 중학생 아들(14)과 함께 광산구 영세민 아파트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수차례의 자살 시도로 병원치료를 받은 점과 유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 증가!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2월1일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